

설교 준비



사진제공 · 정동수

나의 설교준비

다시 찾는 설교 Research Preaching

정 동 수 목 사

사랑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minister@cbck.org

우리나라 목회자의 현실 속에서 창작 설교에 관한 지나친 부담은 오히려 본문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교를 창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에 기존의 탁월한 설교자들과 그들의 설교를 연구하고 이를 또 다른 설교자들을 위해 공유하는 Research Preaching, 즉 다시 찾는 설교에 관한 생각을 나눈다.

목사가 되면 누구나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전달해야 하는 짐을 안게 된다. 서점에는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 강론서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고, 유명한 강사들의 설교 세미나도 많이 있다. 대다수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다닐 때에도 대개 설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준비해서 발표한 뒤 코칭을 받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이다. 특별히 현시대 한국의 목회자들은 설교 외에도 교회 행정, 심방 등 일이 매우 많다.

필자는 주중에 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주말에만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설교에 대해 더 더욱 부담을 많이 느낀다.

필자는 첫 번째 목회를 실패한 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와 설교자를 여러 차례 읽었고 그분의 강해 요지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따라서 강해설교를 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들은 뒤 성도들이 그날의 본문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앞으로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성실하게 살면 목사는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신학교 때부터 목회자들을 짓누르는 압박이 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설교강해학 교수들이 모든 설교를 독창적으로 창조해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므로 대다수 목회자들은 이에 주눅이 들어 매우 힘들어 한다. 오히려 독창적으로 설교해야겠다고 준비하다가 설교본문 문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찾는 설교란

필자는 공과대학의 교수로 30년 정도 일하였다. 공과대학 교수의 '연구'(research)는 대개 다른 사람이 해 놓은 일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획기적인 이론과 작품을 만드는 일은 노벨상을 타는 소수의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다. '연구' 즉 'research'란 말의 의미는 '다시 찾아내다'이다. 여기의 다시 즉 're'는 원래 강조를 위해 쓰이는 접두사다. 그러므로 연구란 과거의 발견에 기초해서 확실하고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필자는 설교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시대 대다수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다시 찾는 설교'에 대해 필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성경은 많이 읽었지만 필자는 로이드 존스, 찰스 스펔전, 존 맥아더같이 타고난 설교자가 아니다. 그래서 대다수 설교의 경우 독창적인 창작 작업을 위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씩 쓰며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천상에서의 고상한 일'은 아예 포기하였다. 주일 오전에는 설교를, 그리고 금요일 저녁과 주일 오후에는 강해를 한다. 이 세 번의 설교와 강해는 모두 50여 분씩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세 번을 모두 온전한 창작을 통해 이뤄낸다는 것은 필자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필자는 현시대 최고의 설교자라 불리는 위어스비(Warren Wiersbe) 목사님의 설교자를 위한 설교주석인 「*Preaching The Word*」를 늘 참조하고, 유튜브 등의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올라온 맥아더, 파이퍼 등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번역서들을 탐구하여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필자가 성경을 읽고 느낀 것을 첨가하여 논리와 열정을 가지고 전달한다. 이와 동시에 'PC Study Bible', 'Wordsearch Bible' 등의 영어 성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여러 사람들의 주석과 설교노트 등을 보고 본문말씀을 문맥에 맞게 강해하려고 노력한다. 필자는 이 작업을 '다시 찾는 설교'라 부르고 싶다. 즉 'research'를 하는 것이다.

사실 위어스비, 맥아더, 파이퍼 등도 다 과거의 훌륭한 목회자들, 예를 들어 찰스 스펔전, 조지 윗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등의 글을 통해서거나 직접 설교를 들음으로써 성경의 책들을 설교하고 강해하는 것을 터득하였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에게 주어진 재능을 거기에 더하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설교를 하게 되었다. 즉 사도 바울 이래로 약 2천 년의 세월이 흐르며 훌륭한 설교자들의 설교들이 설교집 혹은 주석 등을 통해 전달되었고 현시대에는 이들의 과거 동영상이나 음성자료들이 많은 이들에게 설교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들을 잘 활용하여 내 것으로 만든 뒤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필자의 설교방법이다.

필자의 경우 위어스비 목사님의 주석을 가장 많이 참고한다. 다행히 그분의 몇몇 설교들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그분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면 말씀 선포지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 청중을 압도하는 힘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기독교 희락주의를 선포하는 파이퍼의 열정적인 설교를 들으면 그를 통해 살아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국내에서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설교자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가장 많이 지으셨다.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등은 참으로 감동을 주는 책이다. 또한 정용섭 목사의 설교 비평 책들도 읽어 보면 설교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필자는 이런 분들이 설교에 대해 기록한 책들을 매우 많이 읽는다. 필자가 구매하는 책들의 다수가 설교에 대한 책들이다.

필자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하고 있음을 교회 사이트에 공표하고 설교 시간에 늘 언급한다. 물론 필자 자신이 독창적으로 우리 교회의 필요에 따라 창작하여 설교한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필자보다 훌륭한 설교자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성경 전체를 강해하는 것이 필자를 포함한 여러 성도들에게 유용하다고 믿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성경의 대다수 책들을 강해하고 많은 것들을 설명하였다. 설교 영상 2천여 편을 유튜브에 올렸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모든 설교 및 강해 노트를 교회 사이트에 설교 영상과 함께 올려놓는다. 이는 필자가 그랬듯이 후에 다른 사람들도 필자의 노트를 참조하고 발전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설교자의 열정이 갖는 중요성

그런데 이런 교과서들이 있다고 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다 들리는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설교자의 열정을 더해야 한다고 믿는다. 배우들은 가짜를 연기하면서도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연기하는데 많은 설교자들은 진짜를 설교하면서도 확신 없이 가짜를 설명하듯 설교한다. 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이 설교자의 설교에서 드러나면 청중에게 들리는 설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음은 「Preaching The Word」(설교를 위한 주석 시리즈)의 편집자인 휴즈(R. Kent Hughes) 목사의 글이다.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자의 특성’이다.

예배 시 설교에서 설교자와 회중이 성령님에 의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다음의 세 가지 요소가 설교자에게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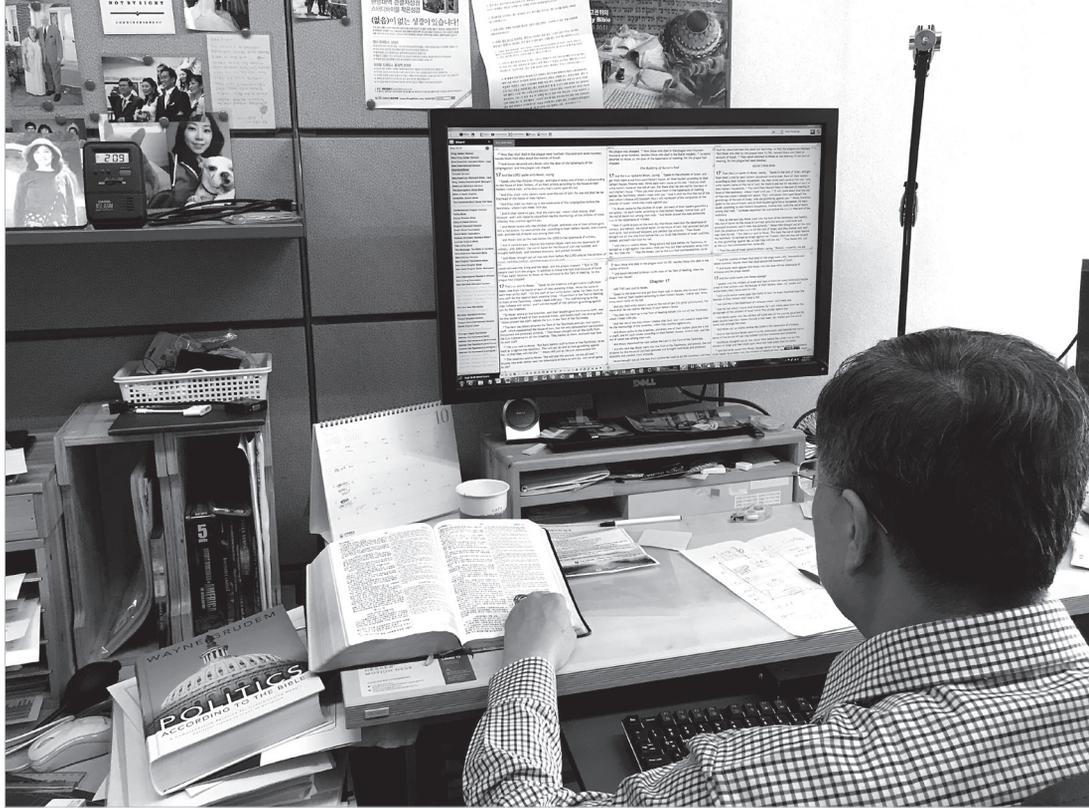
1. 로고스(Logos)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우리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회중 앞에 섰을 때 설교자들은 일단 우리의 속제를 한 것이다. 우리는 본문 구절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보며 문맥 안에서 그 안의 단어들의 뜻을 찾아내고 그 단어들이 회중에게 바르게 전달되도록 올바른 해석 방법에 의해 본문을 해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인 로고스 그 자체를 선포한다. 이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의 핵심이다.

2. 에토스(Ethos)

둘째는 에토스인데 이것은 곧 설교자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설교를 할 때 아주 치명적인 병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것들을 다룬다는 생각으로 당신의 손과 마음을 마비시켜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필립스 브룩스(Phillips Brooks)는 이것을 열차 안내원 비유를 통해 잘 보여 준다. 안내원은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에 큰 소리로 몇 차례 그 역의 이름을 알려준다. 그리고는 자기가 큰 소리로 몇 차례 그 역을 알려주었기에 지금 자기와 승객들이 그 역에 도착했다고 믿는다. 그래서 브룩스는 설교는 반드시 인격체를 통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우리가 다 구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그것에 복종하려 하고 그것을 갈구하며 그것이 우리의 에토스(정신세계)의 일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청교도인 에임스(William Ames)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설교가 효력을 발휘하려 할 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꾸밈없이 설교자의 마음에서 흘러 나오는 에토스이다.” 설교자의 에토스가 그가 전하는 로고스를 뒷받침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이룰 수 있다.

휴즈(R. Kent Hughes) 목사는 “설교 시 하나님의 기쁨은 로고스(말씀)와 에토스(설교자)와 파토스(설교자의 열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당신도 이 셋을 갖추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때에 회중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진제공 · 정동수

3. 파토스(Pathos)

마지막으로는 개인의 열정과 확신이다. 한번은 스코틀랜드의 철학자이자 불신자인 흄(David Hume)이 조지 윗필드(George Whitefield)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데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선생님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요.” 그러자 흄이 대답하였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믿을 때에는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다. 확고한 믿음과 더불어 필수적인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설교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설교 시 하나님의 기쁨은 로고스(말씀)와 에토스(설교자)와 파토스(설교자의 열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당신도 이 셋을 갖추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있고 그때에 회중 가운데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설교자로서의 십여 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설교에 관한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설교자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논리적으로 진리를 제시해도 회중에게 감화를 주는 설교는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교자가 행동도 반듯하고 가정생활도 바르게 하며 모든 면에서 원리와 원칙을 잘 지키는데도 성도들은 그의 설교에 의해 큰 감화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설교자가 설교단에 나오면

성도들은 으레 ‘오늘도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하겠지’ 하고는 타성에 젖어 설교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 그 이유는 설교자가 로고스 중심으로 설교한다고 하면서 에토스와 파토스가 없는 설교를 하기 때문이다. 로고스만으로는 하나님과 회중의 기쁨을 이룰 수 없다. 이 경우 설교는 대개 성경공부 스타일의 설교가 되고 만다. 이런 식으로는 성도들의 감화를 이끌어 내기가 대단히 어렵다.

에토스와 파토스는 설교자가 자기와 회중이 같은 세상에 산다는 것을 공유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설교자들은 스스로 고고한 세상에 살면서 이 어렵고 부조리한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이 경우 설교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허공을 치게 된다.

‘이 설교는 일차적으로 내게 하는 것이며 바로 나 자신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에토스가 들어가야 설교가 살아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에서 퍼져 나오는 열정을 성도들이 느낄 수 있다. 이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생기면서 회중은 말씀에 비추어 나도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로고스와 에토스와 파토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열정적으로 외치는 좋은 설교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6